

청년고용 개선됐다지만 '그냥 쉰' 20대 역대 2위

20대 34만1000명 취업 자체 포기하고 구직 활동 시도조차 안해

지난달 일자리 사업의 수혜를 입은 60대와 함께 20대 청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에 20대에서 아무런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원하는 사람의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34만명의 청년들이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구직 활동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000명(-0.1%)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6만4000명) 이후 12개월 만이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 자체가 없어 취업자나 실업자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중 육아나 가사, 취업 또는 진학 준비, 연로 심신장애 등의 사유가 아니라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

구가 216만6000명이다. 월 기준 이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공표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그냥 쉰 20대 인구는 통계 작성 이래 증가를 반복해왔지만, 최근 2개월 새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1월엔 2만4000명이 늘었고 2월엔 4만2000명이 증가해 지난해 7월(5만9000명)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그냥 쉰 인구를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이 93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44만명)가 이었다. 20대에서 그냥 쉰 인구는 34만1000명이었는데 이는 2012년 2월(34만8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20대 후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청년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상용직 근로자 증가, 청년고용 개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지난 2017년 1월 1만명 감소한 후 25개월 연속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고용률도 57.4%로 0.2%p 올랐고 실업률은 9.5%로 0.3%p 하락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규모를 보면 2018년 11월 16만2000명을 기점으로 2018년 12월 14만2000명, 2019년 1월 10만5000명, 2019년 2월 5만6000명으로 최근 3개월간 급락했다.

단순히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을 넘지 않아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시간관련 추가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하지만 취업이 조사 대상 기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잠재취업가능자', 구직 활동을 하진 않지만 조사 대상 기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잠재구직자' 등이 모두 반영된 확장실업률 지표인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달 24.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결국 청년 넷 중 한 명은 취업 시장에서 배제돼 있던 얘기다.



백설기로 사랑을 전하세요 우리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화이트데이의 사랑 대신 우리 쌀 백설기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백설기데이'가 14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연구원들이 형형색색의 백설기를 선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삼성·롯데카드도 현기차 수수료 협상에 '백기 투항'

업계 1위 신한카드에 이어 삼성과 롯데카드도 현대·기아차의 수수료 협상에 백기를 들었다.

현대·기아차를 구매하는 모든 카드고객들이 결제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을 일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 실패로 카드업계의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이날 삼성·롯데카드와 수수료를 협상을 마쳤다. 지난 13일 신한카드와 협상에 이르지 하루만이다.

업계 2위 신한카드에 이어 삼성과 롯데카드도 현대·기아차의 수수료 협상에 백기를 들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1월말에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을 통보한 뒤 두차례나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카드사들에 조달금리와 연체채권비율이 감소하고 현대차와의 제휴 마케팅이 없는데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큰폭 인상한 근거를 설명해준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기차의 반대에도 버티던 카드사들은 현기차가 통보한 계약해지 일을 앞두고 줄줄이 백기를 들었다. 지난 10일에는 5개 카드사(KB국

토수수료를 협상) '수수료 인상' 실패라고 보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와 통신사 3개사 역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실패가 다른 업권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수수료 인상 실패 소식이 들리자 일부 유통업계에서도 기존 수수료로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렇잖아도 협상력 우위에 있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인상은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 인상 실패의 책임을 금융당국에 물었다.

지난 13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라며 "(현대·기아차와의 협상실패는) 금융위원회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쉽지 않다"면서 "대기업이 협상력 우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인상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신한에 이어 삼성·롯데카드도 수수료 협상

카드업계 "협상 타결은 수수료인상의 실패"

"인상 실패, 유통·통신회사로 확대될까 우려"

지난 12일 신한·삼성·롯데카드는 현기차가 제시한 카드 수수료안을 수용한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계약해지' 강세에도 수수료를 인상을 고수하던 카드사들이 모두 백기를 든 것이다.

이들 3개사 관계자는 "현기차가 제시한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월가)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며 버티었다. 하지만 계약해지 상태가 계속되며 고객불편이 커질 것을 우려한 카드사가 현대차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말에 카드업계는 연매출 500억원 대형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유통과 통신사 등 다수 대형가맹점이 이의제기하며 반대했지만 특히 현대·기아차는 '계

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 11일에는 BC카드가 협상을 마쳤다. 계약해지된 뒤에도 버티던 신한·삼성·롯데카드도 결국 순차적으로 협상에 입했다.

이로써 모든 카드사가 현기차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현대·기아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을 일은 없어졌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카

2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조업일수 감소 영향

생산, 25만7276대...전년비 7.1%↓

내수, 12만617대...전년비 4.2%↓

수출, 16만442대...전년비 1.6%↓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 판매 및 수출실적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업일수 감소와 일부업체의 부분파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25만7276대로 지난해 2월보다 7.1% 감소했다.

업체별로 현대차는 팔리세이드, 코나 등 스포츠다목적차량(SUV)은 생산이 증가했으나 세단형 모델의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며 전년동월대비 10.1% 감소했다. 한국지엠(GM)도 크루즈, 캠퍼바 등 일부 모델 생산 중단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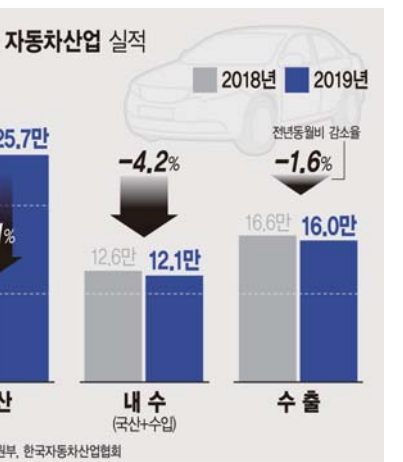
쌍용도 렉스턴 스포츠 칸, 신형 코란도 등 신차출시에 따른 기존모델 재고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6.2% 감소했다. 르노삼성은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3.8% 급감했다.

다만 기아차만 K3, 니로, 카니발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했다.

내수도 전년동월대비 4.2% 줄어든 12만617대 판매에 그쳤다.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과 함께 수입차 판매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팔리세이드, 싼타페 등 중대형 SUV 위주로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했다. 쌍용도 렉스턴 스포츠 칸의 신차효과 등으로 7.2% 늘었다.

반면 기아차는 10.2%, 한국GM은 10.8%, 르노삼성은 8.0%, 수입차는



19.1% 씩 내수판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와 세단형 모델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한 16만442대로 집계됐다. 기아차만 15.0% 수출이 늘었음 뿐 현대차(-6.4%), 한국GM(-10.7%), 쌍용(-5.8%), 르노삼성(-36.1%)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